

3월 선교소식을 나눕니다.

미국 벤엘교회에서 발간한 3월 21일 '오늘의 양식' 목사 집에 "상쾌한 봄비" (Refreshing Spring Rains) 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가슴 두근거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맺는 말이 또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 역시 자주 이웃에게 들려주던 말씀인데 유난히 가슴 두근 거림이 많았던 이유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사랑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 생각 했습니다.

후방은 정말 상쾌한 봄 비가 내리는 계절이 되었군요. 하지만 선교지는 무더운 여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낙 비가 내려 더위를 식혀주고 농부들에게 미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수 일 후면 4월이 시작 됩니다.

새로운 달 4월에도 항상 상쾌한 나날 되시길 축복 드리며 3월 소식을 나눕니다.

@ 탕가신학교(TCBC) 소식.

= 방학.

첫번째 텀(term)을 마치고 22일 부터 한달간의 방학이 시작 되었습니다. 동시에 작년에 졸업한 학생 중에서 3명의 학생들이 남은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받아 떠나는 이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앞 날도 주님 때문에 상쾌한 날들이 계속 되어지길 기도 합니다

= 침대 매트레스 교체.

지난 십 여년간 사용해온 매트레스 50개를 교체 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다보니 얇아지고 구멍 난 곳이 많아 많이들 불편 했을텐데 불평없이 잘 참아준 학생들이 너무 고마웠고 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 신학교 사택 수리.

사역 시작 할때 경험 없이 제일 처음 건축한 집이라 여기저기 금이간 곳이 많아서 대대적인 수리를 시작 했습니다.

후방의 선교팀들이 방문해도 죄송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수리 기간은 약 1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리빙스톤 중,고등학교 소식.

= 학생들 소식.

약 10일간의 첫학기 중간 방학을 끝내고 학생들이 돌아 왔습니다. 이제 남은 학사 일정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명의 새로운 교사 채용.

올 7월 부터 고등학교(이곳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Form 5, 6라고 합니다)

가 시작 되고 그 이전(3월 27일부터)에 약 2개월 반 정도 준비교육이 있기에 새로운 교사를 채용 했습니다. 이들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적응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입학 합격자 수는 1차적으로 약 30명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학년이 시작하는 7월 이전에 2차 입학 시험의 기회를 줄까 계획 하고 있습니다.

@ 건축 소식.

= 지난 달 선교소식에 기도제목을 나누었던것 처럼 고등학교 기숙사공사는 재정이 확보될 때 까지 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 숙소가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기존 기숙사 1동이 남아서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과학관 마무리.

전등 부착등 조그마한 일들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 및 실험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 시골지역 교회 및 유치원 건축.

= Misozwe 교회 유치원.

공사가 잘 진행되어 이제 곧 지붕을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Misozwe 교회 유치원 건축은 서울에 있는 신성장로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으며 작은 교실 4칸 과 사무실을 갖게 됩니다.

= Komsala 교회건축.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에서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인데 거리상 (약 400km) 가까운 곳에 있는 저희들이 돕기로한 사역 입니다. 이 교회도 조만간 지붕을 올리게 되며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저희 동역자들입니다. 마침 고등학교 기숙사 건축을 쉬고 있는 때 라서 다른 봉사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 이지요.

@ 선교사님들 동정.

김진우 선교사(고태일 선교사 아내)께서 말라리아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완쾌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교지 신고식을 단단히 치르셨습니다.

김주흥 선교사님은 아직도 한국에 머물며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약한 부분이 다 치료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이제 시작되는 고등학교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2. 중단된 고등학교 기숙사 건축이 다시 시작 되도록.
3. 교회건축과 유치원 건축이 잘 마무리 되도록.
4.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물심양면으로 선교지를 위하여 애써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3월 25일

탄자니아에서 박윤석 선교사 가정 드림.